오늘은 많이 안 바쁘네… 앗, 마법의 문장....

딸랑 - 생각이 끝나기 무섭게 문이 열리며 손님이 들어왔다.

.... 어서오세요! 몇 분이세요?

방금 스쳐 지나간 향이다.

근데 이 사람은...?

2명이요

허구한 날 매일 남자가 바뀌어서 오는 손님이다.

맨날 내가 바쁠 때 와서 가까이서 볼 일이 없었는데, 남자가 많은게 이해갈 정도로 고급지고 아름답게 생겼다.

오늘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랑 오셨네.

............어? 뭐라고? (어이없는 표정)

아차, 생각으로 말한다는 게.

오늘따라 정신이 이상한 것 같다.

야 너 방금 뭐라고 했냐고.

아,아니.. 이렇게 이쁘신 분이 왜 오늘은..! 아니 이게 아니라.

진짜 대참사다. 쥐구멍에 숨고 싶다..

하..한 번만 봐줄게.

그녀는 이쁘다는 말에 화가 조금 풀린 것 같다.

생각보다 칭찬에 약한 것 같다.

.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\_

친구 1: 빨리 가서 얘기하고 와 ㅋㅋ

야 그걸 어떻게 해? (조금 취한 표정).

주문을 받고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는데 누군가 나에게 다가왔다. 고급지면서도 진하지 않은 우아한 연한 장미 향이 나는 것을 보니 아까 그 여자인 것 같다.

후으.....야 알바.

예..예?

나랑 사귈래?

1. 어.. 잘못들었는데 뭐라고요?

2. 네?

에? 내가 방금 뭐라고 했더라? (진짜 까먹었다는 듯한 표정으로)

..아아~ 기억났어 나랑 사귀자고! 나 너 마음에 들었어

어떻게 된 영문인지 그녀는 나에게 술냄새를 풍기면서 뜬금없는 소리를 했다.

아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술 많이 드신 거 같은데 그냥 쉬시는게...

아니? 나 멀쩡한데? (누가봐도 얼굴 빨갛다.) 그래서 사귈 거야 말 거야?

그녀는 생각보다 더 막무가내였다. 아까 내가 실수한 것도 있고 해서 강하게 거절할 수는 없었다.

친구1: 야 너 까인거같은데? 그냥 다시 와서 앉아~(웃음)

아니거든? 슬슬 다 와가는데 재촉은...!

야 너 시간 없어 어떡할거야? (주인공에게 다가감)

그녀는 어째서인지 나에게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다. 한 발짝 한 발짝 다가올수록 아까 맡던 향은 서서히 짙어져 갔다.

저는... 아직 누구랑 사귈 준비가 안되어있는거같아요. 게다가 지금 너무 갑작스럽고 좀 당황스러워요. 죄송합니다.

너.. 너 진짜 후회한다? 나 같이 예쁜 사람이 여자친구가 되어주겠다는데..!

예쁜건 둘째치고 너무 막무가내다.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래도 되는건가?

손님, 자리로 돌아가주세요. (정색)

그녀는 내 얼굴을 흘깃 보곤 조용하게 다시 자리로 돌아갔다.

(다른 손님 무리) 저기요! 여기...

네!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

여전히 다시 나의 정신 없는 알바라이프로 돌아갔다.

사장: (주인공)아 지금 술집도 적적한 김에 지금 남아 있는 테이블에 안주 서비스라고 하면서 주고와.

네 알겠습니다~

알바도 얼추 시간도 많이 지났다.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왜 저 사람(한서령)은 아직도 있지? 게다가 술병도 아까보다 잔뜩 늘어났잖아?! 어째 불길하다.

친구1: 야 마지막으로 다시 해볼래? 저 알바생이 너 걱정되는 거 같이 보이는데?

(근데 사실 주인공은 사실 별 관심없음 그저 늘어난 술병에 감탄만 할 뿐임)

하ㅏㅏ아? 이버네야 말로오 저 남자…번호 꼭 얻어갈그야ㅑ(딸꾹)

야!! 알바!!

아이고 이 진상아..(혼잣말)

역시 내 불안은 틀리지가 않는다. 슬슬 짜증난다. 이번에도 그러면 강하게 거절 해야겠다.

네 손님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?

나는 최대한 영업용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갔다.

필요한 거 있지 이자시가ㅏㅏㅏㅏㅏ 너 번호!! 버노 당장 찍어!!! 마지막 기회야!!

(단호하게)싫어요.

뭐..뭐라고?

(짜증난다는듯이) 싫다고요.

표정이 일그러져서 표정관리가 안될 쯔음에 그녀의 친구가 급하게 그녀를 데리고 나갔다.

그녀가 머문 자리에는 연한 장미 향만 맴돌고 있었을 뿐이다.

(인정 할 수 없다는 말투로)나 여기 다시 올게에~!!